

오래된 미래, 새로운 과거를 찾아!

2017년 의원 국외연수(중남미) 수행 결 과 보 고 서

2017년 8월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7년 국외연수(중남미팀) 추진 개요

- 연 수 국 :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 연수목적 :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글로벌 마인드 향상을 통하여
경북도 의정에 접목
- 연수기간 : 2017. 7.4 ~ 7.15(8박12일)
- 보고서 작성자 : 교육위원회 박용선(연수단 간사)
- 연수자 인적사항

소 속	성 명	비 고
기 획 경 제 위 원 회	배진석	
"	장경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정호	
"	박영서	
"	박권현	연수단장
"	장두욱	
문 화 환 경 위 원 회	장대진	
농 수 산 위 원 회	나기보	
"	배영애	
"	이동호	
"	한창화	
교 육 위 원 회	김희수	
"	박용선	연수단 간사

○ 연수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7. 4(화)	인천	페루리마		· 출국, 리마도착	
7. 5(수)	리마	우루밤바	쿠스코시청	· 자연유산 보호정책과 활용방안 수집	시장
7. 6(목)	우루밤바	체재	마추픽추	· 세계유산 관리정책 및 산업자원화 사례	
7. 7(금)	우루밤바	리마	시의회 등	· 의회제도 비교 및 자료수집 · KOTRA 간담회	김백진 과장
7. 8(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체재	국회의사당	· 행정시설 활용 관광자원화 방안	
7. 9(일)	부에노스 아이레스	체재	시내답사	· 한-아르헨 50주년 기념행사 참석 · 주아르헨티나대사 및 한인회 간담회	추종연 대사 이병환 한인회장
7. 10(월)	이과수	체재	이과수	· 관광 유치프로그램 및 수자원 활용방안	
7. 11(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체재	도심답사	· 지역 랜드마크 조성사례 수집 · 코트라 초청 간담회	김승기 과장
7. 12(수)	리오데자네이로	상파울로	슈가로프	· 관광마케팅 현장 벤치마킹	
7. 13(목)	상파울로	체재		· 비행기 미운행에 따른 현지 체류	
7. 14(금)	상파울루	뉴욕		· 귀국(환승)	
7.15(토)		인천		· 귀국	

|| 차 례 ||

I. 서론 : 민심은 배를 띄우는 물입니다.

II. 본론 : 오래된 미래, 새로운 과거를 찾아

① 첫 번째 여정 : 페루, 오래된 과거와 새로운 미래6

- 1> 리마, 중고차의 Blue Ocean · 부패와 여경 · 안전
- 2> 쿠스코, 일자리 틈새시장 · 감자의 미래
- 3> MATCHU, 산천은 의구하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 4> 리마, 한국국제협력단(KOTRA) 면담

② 두 번째 여정 : 아르헨티나, 슬픈 이민사에서 밝은 미래로 15

- 1> 부에노스아이레스, 에바 페론과 평가 논쟁
- 2> 레플레타 묘지와 예천 석송령
- 3> 탱고의 발상지 보카지구, 웃음은 세계 공통어입니다
- 4> 대사관과 교민회 면담, 슬프지만 유쾌한 면담
- 5> 이과수, 물보다 장애인 배려정책과 안전문화

③ 마지막 여정 : 브라질, 경북 신도시의 미래 22

- 1> 리우데자네이루, 코르도바 언덕에 국민像이 있습니다
- 2> KOTRA, 브라질 경제전망
- 3> 삼바 드로모, 축제의 모델
- 4> 세계화한 한식문화의 발견

III. 결론 :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현대식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104년 만에 최악이라는 가뭄으로 전국의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5월부터 가뭄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물 부족 해소에 안간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랜만에 내린 작은 빗줄기에서 너무 많은 기대감을 품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올 3월부터 준비해왔던 2017년 해외연수는 유례없는 자연재해로 인해 5월부터 참가자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기상청의 장기 기상발표에 따르면 마른장마가 예상된다고 하니 해외연수를 아예 미루자는 의견부터 어차피 연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의견까지 분분한 논의가 지속되었습니다. 6월 26일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출국일인 7월 4일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하는 일은 아침저녁으로도 예측할 수 없다는 술한 경험을 잊고 우리는 희망만을 보는 우를 범하고 출국 하였습니다.

‘민심은 물이다’라고 하는데 물은 섭씨 4도에서 가장 무겁다고 합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하며 겨울에는 4도보다 높거나 낮은 물은 위로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면부터 서서히 얼기 시작하면서 결국 가장 깊은 곳까지 얼게 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시작된 해외연수 논란에서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한 여름 뜨거운 열기에서도 민심은 표면에서부터 두껍게 얼고 있음을 가슴깊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각종 정보화 매체의 발달로 웬만한 정보는 인터넷만으로도 간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만으로도 우리가 갔던 곳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시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 배운 것은 인터넷이나 TV 속에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페루의 중고차와 Blue ocean의 가능성, 여경과 부패는 정보화 매체로는 경험할 수는 없는 생생한 체험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레폴레타 묘지와 예천 석송령, 탕고거리와 한국의 문화와의 비교는 현장에서만 발견 가능했습니다. 브라질 예수상을 통해 경북 도청 신도시 랜드마크 건설의 필요성은 인터넷에서는 찾을 수 없는, 현장에서만 발견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나의 소원’에서 우리나라의 미래상을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우리나라의 모습은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도 아니요,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도 아니요, 문화가 가장 풍부한 나라이다”

물론 김구 선생이 말한 문화가 흔히 말하는 ‘관광지’ 문화가 아니라 ‘인의와 사랑의 문화’라 해도 결국 현실에서는 그것이 ‘보여주는 문화’가 되어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연수 중 체험한 것은 문화가 곧 이미지이고 이미지는 곧 문화적 힘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보고 배움을 떠나 연수의 목표와 준비과정에서 도민의 높은 수준을 맞추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명을 지고자 합니다. 뒤늦었지만,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고 스스로에게 엄격하겠습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① 첫 번째 여정 : 페루, 오래된 과거와 새로운 미래

1> 리마 : 중고차의 Blue Ocean, 부패와 여경, 안전문화

환승까지 30여 시간이 걸려 처음 도착한 곳은 페루의 수도 리마입니다. 페루는 지리적으로나 정서상으로나 아주 먼 나라입니다. 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과거가 그곳에서 재현되어 현재진행형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리마의 거리에는 국내에서는 이미 2001년에 단종된 티코, 구형 프라이드와 엑센트 등이 택시로 지위가 상승(?)되어 씩씩하게 길거리를 누비며 마치 예전 한국의 거리인 듯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내 중고차 수출업은 속빈 강정이라는 현지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중남미에서 중고차를 수입하는 가장 큰 나라인 페루에서 부품시장을 칠레인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2004년부터 1,500cc 이하 소형자동차의 택시 사용을 법적으로는 금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기업이 부품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껌데기만 수출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물론 경찰차의 대부분을 현대 산타페가 장악하고 있고 현지인들 사이에서 한국산 차는 고급차라는 이미지가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부품시장으로서의 매력이 잠재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Blue Ocean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경북도립대에서는 학교기업 라오닐에서 ‘자동차 도장 기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의 경우 호주 자동차정비

센터에 2명이 취업한데 이어 2016년 3명, 금년 3월에도 3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경북도와 (재)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는 항공료, 실손보험료와 현지정착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품질·고급이미지를 바탕으로 자동차 부품산업, 고급정비기술, 특히 경북도와 김천시에서 계획중인 ‘자동차 튜닝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해, 중고차 부품 등의 중남미 진출 교두보로서 페루 리마에서 젊은이들과 도내 관련 기업들이 눈여겨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 튜닝산업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시장규모가 약 4천억원, 1,000여 관련기업, 그리고 5만6천여 명의 동호인들이 형성된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페루의 경제규모와 산업발전 정도를 감안할 때 비록 튜닝산업 전망이 밝지 않더라도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패기를 가진 젊은이들과 살인적 경쟁에 시달리는 도내 기업들의 과감한 도전정신을 기대해 봅니다.

또 하나 눈여겨 볼 만한 것은 부패와의 전쟁입니다. 그들의 대처 방안이 특이합니다.

페루는 부패와 반인권 혐의로 2007년부터 복역중인 알베르토 후지모리 前 대통령, 불법 대선자금과 돈세탁 혐의로 미결구금 중인 오안타 우말라 前 대통령 등 우리의 현대사와 유사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현지인의 말에 따르면 후지모리 대통령의 딸인 게이코 후지모리가 언젠가는 대통령이 될 거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놀라운 것은 거리의 교통경찰이 전부 여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내막이 이러합니다.

1998년 전까지 페루 교통경찰은 남성이 독차지했고 ‘경찰은 점점 부자가 되는데 국가는 더 가난해진다’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경찰의 부패가 만연했다고 합니다. 이에 1998년 후지모리 대통령 시절

교통경찰의 90% 이상을 여경으로 교체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은 가난해지고 국가는 돈이 쌓인다’는 말이 돌 정도로 교통 분야에서 만큼은 획기적 개선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2017년 1월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16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따르면 경북은 광역자치단체 17개 1~5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합니다. 부패의 구조와 관련, 성별에 따른 부패유형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남녀 성별에 따른 인력배치 등을 고려해 보는 것도 개선방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안전과 관련한 주거 형태도 주목해야 합니다.

15세기 스페인의 침략으로 고유문화를 거의 상실한 페루에는 시내 대부분의 주택들이 대부분 블록화 되어 있으며 다세대 주택 간 간격도 매우 협소합니다. 무엇보다 이중채시가 없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유가 지진피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대규모 지진 발생에 따른 구조활동 시 이중채시가 장애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진 피해가 많은 나라의 경험이 반영된 생활밀착형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2016년 기준 비공식 건축물이 전체의 34%를 차지하는 페루가 우리의 안전주거 모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해 경주 지진 이후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 규제가 매우 강화되어 금년 2월부터는 단독주택도 2층 이상의 경우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하인리히의 법칙’처럼, 가볍게 넘긴 300개의 징후가 큰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경험칙을 반영한다면 경북도도 이 곳 페루처럼 생활 속의 작은 위험

가능성도 크게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로 페루는 5년 전부터 아파트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기업인 대림 등이 진출해 있다고 현지 가이드가 알려 줍니다.

2> 쿠스코 : 일자리 틈새시장, 감자의 미래

쿠스코는 고도 3740미터에 위치한 도시로서 고산증을 막기 위해 느리게 걸어야 하는 곳입니다. 완보를 통해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들을 더욱 많이 보게 하는 곳입니다.

맨 먼저 찾았던 쿠스코 시청은 2층으로 된 작은 규모이지만 큰 정을 느끼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시장과의 면담을 준비하는 동안 시청 직원이 시청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잉카문명을 표현한 그림들이 2층 청사 전체를 두르고 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그림만으로도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듯합니다. 콘돌, 퓨마, 뱀으로 상징되는 숫자 '3'에 대한 선호는 '게으름, 도둑질, 거짓말' 등 세 가지 근본 범정신을 오랜 관습법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시장은 태극기를 나란히 거는 의전을 통해 우리를 환대했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환대에는 무엇보다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지역 협력사업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KOICA는 그 동안 의료봉사 활동 등을 통해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어왔으며 이를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경북도의 경우 지난 해 인도네시아, 세네갈, 베트남 소재 대학교에 새마을운동연구소를 개소하는 등 경북도의 위상과 경제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현지인들에게 얼마나 호응을 얻고 있는 지, 교류의 효과는 어떤 지 명확히 분석한 적은 없습

니다. 다만, 그러한 노력들이 이 곳 페루에서처럼 현지인들의 따뜻한 환대를 한국인이란면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쿠스코 시에서 들은 문화정책 중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관광객 수송 버스에는 무조건 현지인이 동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말이 통하지 않는 그들이 직접적인 문화해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문화유산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거리의 돌담 하나도 우리 일행이 손으로 만지는 걸을 손사래 치며 막았습니다.

한국 문화해설사와의 차이를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 현지인 동승이 의무라는 사실이 눈에 띕니다. 2015년 기준 약 3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쿠스코에서 산술적으로 30인승 버스를 기준으로 할 경우 1인 하루 2~3회 동승할 최소 연인원 3만 명의 현지인이 특정 관광업에 종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관광현장이 이곳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고 있는 경상북도에서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 Zeitgeist(시대정신)로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에서도 이에 대한 적응과 응용에 적잖은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증가를 목표로 한 생산과정의 효율성이 얼마나 지역경제에 기여하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방송 등을 통해 ‘순창 고추장의 역설’을 들었을 것입니다. 1989년 1개 기업이 140명을 고용해 20억원의 매출을 올리던 순창

지역 고추장 업체가 2014년 현재는 13개 업체가 매출이 100배가 늘어난 2,000억원의 매출(2016년 3,000억원)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1989년 대비 단 10명의 고용증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곳 쿠스코에서 ‘오래된 미래에서 새로운 과거’를 찾는 일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때라는 판단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페루의 감자입니다. 이곳에 와서야 안 사실이지만 페루는 감자의 원산지라고 합니다. 세계 유일의 국제 감자연구센터(Centro International De la Papa)도 미국 나사와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페루 전체로 약 4천여 종의 품종이 있는데 특히 쿠스코에서 불과 1시간 거리에 있고 나중에 우리가 지나간 우루밤바는 감자의 중심지로서 약 2,300여종이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현지에서 맛 본 감자는 고구마와 유사했습니다. **이 곳에서 경상북도의 감자농업의 새로운 시장을 상상해 봅니다.**

2015년 기준으로 경상북도는 강원도(35%)에 이어 감자생산량이 2위(15%)입니다. 특히 고령 개진 감자는 전국 최대 봄감자 집산지입니다. 물론 개진감자의 품질은 전국 최고이며 우리 토양에 최적화된 품종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미래시장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미 2009년 제7차 세계감자회의에서는 감자로 비만과 기아를 퇴치해야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약 10억명이 기아로 고통받는 반면 과체중 및 비만과 연계된 질병으로 사망하는 수는 20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잘 먹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온통 TV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색깔과 특정 성분만으로도 순식간에 식품시장을 장악하는 현대 소비시장을 고려한다면 이 곳에서 황금알을 낳은 새로운 품종이 존재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농업기술원 등 관계기관에서 반드시 눈여겨볼 만한 합니다.

3> 마추픽추 : 산천은 의구하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나스카 문명, 티티카카호라는 세계적 관광지를 제외하고도 연간 관광객자가 12억불이 넘는다는 마추픽추는 과거의 유산만으로 페루의 경제를 상당 부분 떠받치고 있는 자산이며 외지인들에게는 눈이 호사스런 절경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곳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절경 뒤에 감춰진 경제구조와 원주민들의 소외, 그리고 정리되지 못한 과거사가 혼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쿠스코에서 우루밤바를 거쳐 아구아스 칼렌테스 역까지 2시간 이동하는 잉카레일 기차는 청색의 외관에 정갈한 실내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버스로 이동할 경우에는 8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차를 운영하는 것은 페루인이 아니라 칠레인들이었습니다. 1880년대 두 나라 간 영토전쟁 이후 칠레는 페루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거두었으며 이곳에서는 기차뿐만 아니라 호텔 등 관광 관련 기반의 약 24%를 칠레가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 정복자가 잉카의 상징 동물들을 억누르는 동상들도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500여 년 스페인의 영향 아래 언어도 잃고 정체성도 잃어버린 그들의 처지와 함께 지배층을 형성한 스페인계 지도층의 역사적 오만함과 통합의지의 부족을 여실히 느낍니다.

경제구조에 더해 연간 12억 달러가 넘는 관광수입도 원주민들에게는 거의 지원되지 않고, 현지 농업에 대한 정부보조도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15세기 마추픽추의 전설이 21세기에 되살아나 새로운 마추픽추를 찾아 원주민들이 또 다시 떠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 봅니다.

경북도의 경우, 작년('15.5~'16.4) 17억 1천800만불의 투자를 유치해 '외국인 투자유치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투자유치 형식이 그린필드 투자(국외자본이 투자대상국의 용지를 직접 매입해 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짓는 방식)인 지 혹은 브라운필드 투자(이미 설립된 회사를 매입)인 지 세부적으로 상세히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투자이든 지역경제와 도민 일자리 창출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유치금액의 과다로 정책이 평가되어서는 안됩니다. 도의회에서도 차제에 자세히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한류문화와 관련, 반가운 소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 페루에도 한류문화의 열기는 뜨겁다고 합니다. 한국 아이돌 그룹이 이곳에서 공연했는데 2만3천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한국대사관에서는 이곳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번 선발대회를 해서 국내 연예 에이전트에 보내는 행사도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30여 시간의 물리적 거리를 문화가 이웃으로 만들고 있는 호뭇한 소식이었습니다.

금년 11월 개최되는 경주-호치민 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기대를 높여 봅니다. 20여 일의 일회성 행사가 아닌, 양국의 인적·물적 교류의 기반확대와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리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면담

페루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KOTRA 관계자와의 면담으로 마무리했습니다. KOTRA에 따르면 페루 리마에는 약 1,100명의 한국 교민이 정착해 있는데 정착력이 취약해 사회적 영향력도 매우 낮다고 합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활동이다 보니 중소기업의 진출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리 등 원자재 수입으로 인해 양국간 무역은 수치상 2016년 현재 한국이 1.4억 달러 적자상태라고 합니다. 현지 일부 기업들이 한국의약품 및 화장품 등의 업체들과 공동투자를 협의 중에 있으나 아무래도 언어, 법제, 거리 등으로 인해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고 합니다.

경상북도 경산의 K뷰티 화장품 산업육성 정책을 연관시켜 봅니다. 2025년 수출 10억 달러를 목표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이 외국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 페루의 입장과 일면 상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한류열풍을 저변으로 문화적·경제적 접근을 병행한다면 또 다른 기회가 되리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경산시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발휘할 때입니다.

현재 페루도 외국인 투자유치의 중요성을 인식, 현재 내외국인 투자자 동등대우, 외국인 재산권 보호, 이윤의 자유로운 송금 등을 법 개정 등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② 두 번째 여정 : 아르헨티나, 슬픈 이민사에서 밝은 미래로...

1> 부에노스아이레스, 에바 페론과 평가 논쟁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첫 이미지는 에바 페론과 에비타입니다. 영부인이 대통령 후안 페론보다 더 많은 거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좌·우 정치권의 상반된 평가로 인해 현재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이면서, 동시에 문화의 아이콘이 되고 있는 인물이 다른 어떤 현대사의 인물보다 현실의 거리를 채우고 있는 현실을 보며 대한민국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사업을 상기합니다.

(사)박정희 대통령생가보존회에서 지난 2015년 우정사업본부에 신청했던 기념우표 발행은 논란 끝에 금년 6월 발행 철회가 결정되었습니다.

한 인물의 공과가 권력이 바뀔 때마다 극단적으로 평가되는 경박한 한국의 현실과 관용의 아르헨티나가 대조됩니다. 한 인물이 100% 공만 있거나 100% 과만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이념의 세계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현재의 평가가 합의되지 않았다면 다음 세대로 물려주면 될 일입니다. 다만 현재의 평가가 절대 기준이 되어 상대의 어떤 주장도 용납되지 않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한국에서라면 수십 번 헐리고 새로 지어졌을 에바 페론의 동상과 벽화의 운명이 아르헨티나라서 참으로 다행이라는 자조를 했습니다.

2> 레꼴레타 묘지와 예천 석송령

우리가 먼저 찾은 곳은 에바 페론의 묘지로 유명한 레꼴레타 묘지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도심 내 묘지를 ‘조용한 이웃’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의 정서가 참으로 부럽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묘지 조성 이후 지가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잡은 것은 묘지 앞에 있는 거목이었습니다. 반경 40~50m는 족히 넘을 나무의 무게를 w1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우스꽝스러운 표정의 동상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방문객이 그 옆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에 저절로 감탄을 하



게 됩니다.

이곳 아르헨티나에서 예천 석송령을 떠올립니다.
 둘 다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매력을 가졌으면서도 아르헨티나의 거목은 유쾌한 웃음을 자아내는 반면, 철빔으로 된 지지대를 안고 있는 석송령은 마치 족쇄가 땅에 박혀 있는 듯 답답함을 느끼게 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천군에서는 철빔지지대를 새로운 예술 조형물로 바꾸기를 제안합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가지를 들고 있거



나 올라 앉은 모습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혹은 어머니의 회초리를 피해 달아나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함께 지지대로 형상화하면 어떨까요?

작은 아이디어가 수많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실을 이곳에서 크게 각성합니다.

교통신호등 연동체계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교통상황이 한국 대도시와 비교할 정도로 혼잡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만의 방식으로 교통의 효율성을 높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교통신호등의 연동체계입니다. 교통량을 분석해서 신호등의 점멸 시차와 연동함으로써 교통의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와 비교해 봅니다. 현재 아이파크에서 도청까지 세 개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제 거리에 비해 신호대기 시간이 상당히 긴 편입니다. 작년에 비해 많이 개선된 듯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경우를 비교·분석한다면 훨씬 개선될 여지가 있을 듯합니다. 비단 도청 신도시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도내 곳곳의 교통량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통신호등 연계사업을 추진해야 할 때라는 판단이 듭니다.

3> 탱고의 발상지 보카지구, 웃음은 세계공통어입니다.

작은 거리 전체가 소박한 예술작품으로 가득차 있는 보카지구는 탱고의 발상지입니다. 원래 탱고는 근처 항구에서 노동을 하던 남성노동자들끼리 무료를 달래고자 시작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합니다. 탱고의 발상지답게 카페 종업원들이 커피를 준비하면서도 수시로 탱고를 시연하는데, 갑자기 팁을 달라는 봉변(?)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쾌한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경주 양동마을 등 우리도의 상황을 비교하게 합니다.

문화컨텐츠의 빈약함과 스토리텔링의 극대화에 목말라하는 우리로서는 이곳의 컨텐츠가 벤치마킹의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층에서 손을 흔드는 프란치스코 교황 인형 부터 거리의 벽화, 심지어는 축구영웅 마라도나의 우스꽝스러운 동상까지 화려한 원색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물의 핵심은 의외로 간단할 수가 있습니다. 보카거리의 핵심은 바로 웃음이었습니다.

전통을 살리고 특정문화를 부각시키는 일이 반드시 근엄하고 심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적과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통하는 공통의 언어는 바로 ‘웃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빈약한 문화컨텐츠와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웃음의 부재’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깨달음을 이곳 탱고



거리에서 얻고갑니다.

4> 대사관과 교민회, 슬프지만 유쾌한 면담

출국 전부터 대사관과 교민회에 지속적인 면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지만 일정상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은 터였습니다. 할 수 없이 시내답사로 일요일 일정을 채우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오전 뜻밖에도 교민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아르헨티나 태권도 선수 50주년기념 대사배 태권도 대회’에 초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입추의 여지 없는 실내체육관에 23개팀 선수와 가족들에게 경북도의회가 소개되고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는 유쾌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한식 시식회, 현지 가수로 한글로 부르는 K-Pop 공연, 북공연과 아리랑 노래를 통해 스페인어와 한국어라는 장벽을 뛰어넘어 모두가 어울릴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3시간여의 행사 뒤 추종연 주)아르헨티나 대사와 한인회 회장, 영남향우회장 등이 함께 모였습니다.

추종연 대사는 현지 정국과 한국기업의 진출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전망을 알려 주셨습니다. 충청남북도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경북도에서도 지방 차원의 교류를 해 주기 바란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사과 가공산업에 투자할 경우 전망이 밝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한인회와는 저녁까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슬프지 않은 이민사는 없습니다. 이곳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이민자들은 거제 포로수용소에 있다 다시 인도수용소에서 2년 반을 보내던 전쟁포로 9명이라고

합니다.

이후 1960년대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 이민을 결심한 이들은 현지에 대한 기본 정보조차 없이 이 곳에 왔다고 합니다. 규모에서부터 압도하는 거대한 농지를 보유한 이곳에 한국에서 가져온 삽과 곡괭이를 들고 서 있던 그 분들의 당혹스러움이 눈에 선했습니다.

이민 3세인 현지가이드는 한국에 처음 와서 놀란 것이 논밭의 경계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말을 할 지경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농사를 포기하고 도시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전체 교민 3만여 명 중에 70% 이상이 섬유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데, 초기 이민자 중 봉제업을 한 사람이 다른 이민자들을 이끈 게 그 단초라 합니다.

이제는 LA PLATA 대학에 한국어 강좌를 지원할 만큼 자리를 잡았지만 그 분들의 고생담은 밤을 새워도 시간이 짧았습니다.

당연한 결론이지만 이민 3세와의 교류가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한인회에 따르면,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이민 3세들이 한국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고, 결혼 등을 통해 현지에 동화되는 등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 간다고 합니다. 지리적 불리함까지 더해져 모국과의 단절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양국 젊은이들의 교류를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일 듯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몰랐던 새로운 개척지를 찾았으면 합니다.

5> 이과수, 물보다 장애인 배려정책과 안전문화

이과수는 원래 파라과이 영토였습니다. 근대 이후 가장 참혹한 전쟁이라는 ‘삼국동맹전쟁’이 1864년~1870년 벌어졌을 때 파라과이 남성의 90%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전쟁

보상금 명목으로 각각 20%와 80%의 이과수 폭포와 일대 국립공원 지역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이과수의 강물은 파라과이 여성과 어린이들의 눈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가이드의 말에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강물이 아니라 국립공원 곳곳에 설치된 장애인 배려시설들입니다.

이과수에는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 높은 계단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휠체어로 전체 관람이 가능하며 휠체어 이동이 불가능한 곳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전망대의 안전손잡이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시야에 맞추어 두었으며, 장애인과 노약자를 배려해 낮은 계단을 만들었으며, 휠체어에 맞추어 경사면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도덕적 수준은 그 나라의 동물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에 따라 가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정책과 안전대책을 통해 그 수준을 가늠해 봅니다.

예전에 안이 훤히 보이는 장애인 화장실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테이블에 장애인 지정석 표시판을 설치한 곳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장애인을 배려한다고 한 일이지만 장애인의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상북도의회를 생각해 봅니다.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데 불편함은 없는 지, 조례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없는 지, 많은 숙제를 안았습니다.

이과수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는 안전대책입니다.

이과수 국립공원은 약 550km²로 경상북도 전체 면적의 약 35%가 될 정도로 큼니다. 이곳에 먹이사슬의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재규어가 약 350마리 정도 서식하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재규어가 한마리만 사람 주변에 나타나도 일주일 간 공원을 폐쇄한다고 합니다. 하루 입장객 한도가 1만 명인데 입장수입을 모두 포기합니다.

IMF의 2016년 4월 자료에 따르면, 국민소득순위가 한국은 32위, 아르헨티나는 65위라고 합니다. 인터넷 사이트(www.number.com)에서 해당 국가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은 안전한 국가 1위, 아르헨티나는 10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격차가 일상생활에서의 안전대책 수준에도 반영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금년 7월에도 폭우로 계곡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예방가능한 사고들이 빈발하는 한국의 안전수준을 감안한다면 이곳의 안전대책 수준에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과수의 위용을 불편없이, 안전하게 보여주는 아르헨티나에서 그 나라의 수준을 가늠해 봅니다.

③ 마지막 여정 : 브라질, 경북 신도청의 미래

1> 리우데자네이루, 코르코바도 언덕에 국민像이 있습니다

한국과 브라질의 인연은 1919년, 6명의 조선인이 사탕수수 재배 농장에 도착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6.25 전쟁 이후 아르헨티나 이주처럼 거제도 포로수용소 출신 56명이 브라질에 입국했다고 합니다. 5.16 군사혁명 이후 군인 등이 농업이민을 왔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합니다. 고학력자들이 농업을 제대로 알 리도 없었지만 무엇보다 자녀교육 때문에 농촌에 거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대부분 여성의류 봉제업으로 기반을 잡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와 마찬가지로 브라질도 피와 눈물로 문을 두드린 곳

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방문한 곳은 코르코바도 언덕의 예수 그리스도상과 슈가로프산입니다.

1931년 브라질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만든 예수상은 1920년대 당시 카톨릭 신자들을 중심으로 40만 달러를 모금해 1931년 완공했습니다. 현재 연간 600만명/1인 25달러의 입장료를 계산하면 1억 5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리우데자네이루 최대의 문화관광자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본 예수상은 브라질 국민상이라고 해야 될 듯 합니다. 자연유산이 아니라 문화유산으로서 스스로 관광자원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슈가로프산 케이블카도 이미 1912년에 준공된 것입니다. 예수상처럼 브라질의 과거 역량을 보여주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역량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브라질 공대는 5년제라고 합니다. 졸업률이 40%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됩니다. 평균 8~9년이 되어야 졸업하는데 연봉이 한국의 5배가 될 정도로 그 능력을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금년 7월 기준 72만8천명의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9.3%라고 합니다. 문과든 이과든 자신의 적성과 전공에 관계없이 공무원시험에서 취업 돌파구를 찾는 한국의 현실과 같습니다. 비록 금년 하반기 경북도에서 442명의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입니다.

일자리창출이 국정의 최대과제가 된 지금,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 수립과 현장의 경험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리우데자네이루 예수상과 슈가로프산의 방문한 일은 자연스레 경북도청 신도시의 미래를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상북도 청사는 안동 이전 이후 지금까지 80만명 이상이 다녀간 새로운 랜드마크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을 언제까지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먼 미래까지 생각한다면 새로운 랜드마크도 고려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미 고층 아파트들이 청사의 위용을 압도하는 실정입니다.

검무산을 배경으로 2027년까지 조성될 330만평의 신도시를 대표할 만한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평가를 받지 않을, 놀라운 아이디어라는 조형적 평가를 받을, 자연과 잘 조화되는 환경친화적 랜드마크를 상상해 봅니다.

2> KOTRA, 브라질 경제전망

코트라 리우데자네이루 사무소에서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브라질 경제전망과 유망진출 분야에 대한 유익한 내용을 알려 주었습니다.

브라질은 긴 법인설립 기간(평균 107일)과 강성화물연대 파업 등 복잡한 노무관리, 관료주의 및 과도한 세금과 인프라 부족으로 브라질 현지 생산시 다른 나라에 비해 약 70%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세계적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애견시장은 2위, 화장품은 3위 규모이며 특히 고령화와 중산층 증가, 급빈층 필수약품 제공과 건강에 대한 관심 등으로 의료·제약 분야에서 중남미 최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산 화장품이 인기 있으며 K-pop 팬만도 2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외 세계 11위의 치안 불안국가로 인해 보안시장은 연

평균 9% 성장하고 있으며 자동차 필름, 방탄유리, 리모델링 자재 등이 유망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등 각각 세계 5위 규모의 면적과 인구에 걸맞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약 70개의 한국회사가 진출해 있는데, 중소기업으로서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 합니다. 하지만 세계 5위의 건강·웰빙 시장인 만큼 경산의 K-뷰티와 미용관련 기업 등에서는 관심을 둘 만한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삼바 드로모, 축제의 모델

7월은 브라질에서 겨울철입니다. 중남미의 겨울에 간 우리가 2월 중순에 열리는 삼바축제를 볼 리가 없습니다. 대신 삼바축제가 매년 열리는 삼바드로모 경기장을 방문했습니다.

경기장은 850m로 된 직선거리인데, 이곳에서 삼바축제는 약 5일간 개최된다고 합니다. 3부 리그로 구성, 18개 삼바스쿨 팀이 각축을 벌이는데 우승은 물론 리그 승격을 위해 일 년 동안 준비한다고 합니다. 관람석이 9만 개나 마련되어 있는데 VIP석의 경우 행사기간 동안 최대 1억원 이상에 팔리는 등 4일 만에 리오의 연간 관광수입의 40%가 확보된다고 하니 과연 세계 최대 규모의 축제 답습니다.

삼바 축제는 정부가 경기부흥을 목적으로 1930년대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삼바학교를 운영, 1년 내내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세계 최고의 축제를 만들어 냅니다.

경상북도의 축제와 비교해 봅니다.

금년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는 약 63개의 지역축제가 개최 예정입니다. 그 중 문체부와 도 지정·지원 축제는 18개가 됩니다. 대표적인 문체부 지정 축제로는 문경 전통찻사발축제, 봉화 은어축제, 고령 대

가야체험축제, 포항 불빛축제가 있습니다. 2017년의 경우 국·도비 20억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시군 자체로 추진하는 축제를 포함할 경우에는 약 60여 개가 됩니다.

경북 외 지자체를 포함한다면 수치상으로는 거의 매일 축제가 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관련, 방문객 부풀리기, 연예인 초청비 과다지급, 공무원 동원 등은 지역축제 후 단골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역 축제의 효과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없이 개최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손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민해 봅니다. 참가인원 등을 기준으로 해서, 비록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행사라 할지라도 전국 공통의 평가 매뉴얼을 적용해 일몰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4> 세계화한 한식문화의 발견

현지화한 한국식당에서 뜻밖에도 한식 문화의 표준을 보았습니다. 외국을 다녀 온 분들이라면 당연히 느꼈을 것이지만, 외국 음식 문화의 특징은 1인용 식기와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할 쇠젓가락과 쇠숟가락으로 상징되는 ‘함께 먹는 식기 문화’입니다.

대부분의 음식을 같은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함께 먹는 것이 한국의 문화입니다. 그것이 외국인에게 얼마나 비위생적으로 보일 지는 우리만 모르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갔던 식당은 현지화한 한국식당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반찬가짓수에도 불구하고 모든 음식을 개인별로 담았습니다. 여러 숟가락이 들락거리는 찌개는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한식문화의 표준, 그리고 미래를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음식을 같이 먹는 것에 불쾌감을

느낍니다. 이곳 식당의 차림을 보며, 낯선 곳에서 식당을 개업하고 외국인들의 식성과 매너를 꼼꼼이 살피며 고민했을 주인의 노고를 짐작합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외국인 국내 입국자는 총 15,456천명이며 그 중 중국인이 50.2%, 일본인이 14.7%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음식은 한국의 대표문화이며, 추억의 상징이 가장 불만이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문화를 대표하는 동학 2대 교주인 최시형은 ‘밥은 하늘님이요, 밥 한 그릇을 잘 먹으면 우주의 모든 이치를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밥 한 알이 귀신 열을 쫓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동북아 삼국의 음식문화를 구분하자면, 밥을 주식으로 반찬을 부식으로 하는 한국의 뚜렷한 식단과 달리, 일본과 중국에서는 주식과 부식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10여 년 전의 경우 한해 한사람 당 연간 205개의 삼나무 젓가락을 사용하며 중국의 경우 연간 2천만 그루의 나무젓가락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한 그릇에 담긴 음식을 수저를 사용해 같이 먹으며 더군다나 쇠 수저를 사용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눈에는 오해와 불쾌감을 일으킬 소지를 줄곤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경북의 음식문화를 세계화해야 합니다.

음식의 질을 차치하고라도, 음식을 담는 형식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경북의 경우,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 등에 대해서는 상차림과 식기, 테이블 크기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하고 시설교체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제안합니다. 음식의 질뿐만 아니라 형식에 있어서도 세계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론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주마간산(走馬看山), 군맹평상(群盲評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것도 사물의 본질과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번 연수도 그럴 수 있습니다.

페루와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더 뛰어나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아닙니다. 다만 선진국의 발달된 시스템에 어두운 면이 있듯이, 우리가 방문했던, 일견 우리보다 경제적 규모가 작은 국가에서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많은 선진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가 계획에 대한 사전검증과 준비 소홀이었습니다.

개인별 목적의식 의식도 부족했고 사전정보 습득 노력과 현지 기관 방문 사전 협조도 부족했습니다.

타성에 젖은 방문국 선택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물론 페루와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국가 수준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세를 말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도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게 가장 큰 잘못입니다.

생업의 무거움을 등에 지고 있는 대다수의 도민들에게, 해외연수라는 기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도민에 대한 의무의 수행이 아니라 권리라고 안이하게 생각한 우리의 잘못입니다.

해외연수에 대한 도민들의 많은 비판과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번 연수경험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합니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 되듯 새로운 길을 찾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길을 가겠습니다.